

2017. 6. 28

현대그린푸드 탐방노트

●
음식료
Analyst 김정옥
02. 6098-6689
6414@meritz.co.kr

Comment

2Q17 에버다임 포함기준 매출액 +3.3% 성장, 영업이익 +2.3% 성장 예상. 푸드서비스 역기지 부담 완화(16.5월 이후 중공업 向 부진), 식재사업 원료유통 재개로 10% 매출 성장 예상. 별도 법인 실적 성장 전환 및 에버다임 고정장 지속이 소폭 성장 전환을 견인. 컨센서스 부합 전망

단체급식(푸드서비스)

중공업 구조조정에 따른 식수 감소 영향은 17.5월 이후 제거. 중공업 向 급식 매출도 저점은 형성했다고 동사 내부적으로 판단, 개선 시기는 17년말 이후로 예상. 자동차 파업, 예상은 어렵지만 16년은 2분기, 3분기 파업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기저 낮음. 2분기 이후 급식부문도 QoQ 개선 기대. 범현대 비중은 80% 유지. 비계열 고객도 늘지만 범현대 초과성장세는 아님

유통사업부문(리테일)

가든파이프 출점 효과는 5월말 부터 반영(연환산 100억원). 실질 기여는 하반기 전망. 16년 하반기 김영란법 도입 앞두고 선물세트 매출 최대 기록. 역기지 부담으로 성장세는 미미할 전망. 유형별 매출 규모는 대형점포(판교점 등) 300억원, 일반점포 200억원, 아울렛 등 100억원. 19년 아울렛 3개 오픈 예정, 20년 파크원 오픈예정

식자재유통

2Q17 이후 원료 유통 재개로 두 자리수 성장 예상. 주력인 급식용 식자재 부문 신규 수주 지속 때문. 고객 구성은 급식부문 80%, 원료 및 외식부문이 20%.

법인영업 등

2Q17 연결자회사인 HNS는 매출은 CM 비중확대로 매출 성장 예상되나 이익률 하락 흐름은 이어질 전망. 매출과 영업이익 동반 성장은 기존 아이템 매출 회복이 예상되는 하반기 기대. 드림투어는 2Q17까지도 고객사의 출장수요가 좋지 않은 상황. 드림투어 회복시기는 4Q17으로 전망

에버다임 및 기타

국내 건설 착공 경기 호조로 인한 생산량 증가 효과 이어짐. 2Q17, 4Q17 아프리카, 베트남 소방차 수출 각각 200억원 반영되는 부분도 실적 성장에 기여. 두 자리 수 영업이익 성장 흐름 지속 예상. 순환출자 해소와 분할 관련하여 동사는 일부 순환출자 구조이긴 하나 아직 법률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6월 2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6월 2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6월 2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옥)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